

# “경쟁 일변도 現 입시제도 혁신 필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학생 대표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경쟁 일변도인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약속했다고 전남교육청이 2일 밝혔다. 사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올레' 장면.

취임 이후 '경쟁올레'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 대표들을 만나 경쟁 일변도인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나주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2019 전남학생회 전반기 정기회'에 참석해 도내 고등학생 대표 120여명과 대화의 시간(경쟁올레)을 가졌다.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 교

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 체계와 입시 교육의 현주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승자 독식,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은 경쟁 일변도인 현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 외에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공부와 입시에만

전남도교육감, 학생들과 대화서 ‘입시교육 민낯’ 비판

“학생들끼 살리는 교육·입시 제도로 전면 혁신해야”

학생인권-참여 보장, 체벌, 등교시간 등 폭넓게 소통

때문에 '현재'를 회생하고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군 장 교육감은 “이대론 안된다”며 “입시제도의 전면적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 변화의 시대, 빠르게 다가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며 “전국의 교육감들과 협력해 입시제도와 교육제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시교육의 민낯을 지적한 그는 또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주체적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 제정 ▲교내 민주주의 실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전남학생회회 의장인 목포 영흥고 최연우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학생의원

들은 ▲체벌 금지 ▲9시 등교 ▲학교식 품질 개선 ▲생활복 등교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놓고 교육감과 격의없이 폭넓게 소통했다.

학생의원들은 특히, 교육감과의 소통 기회를 더 늘리는 방안과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을 건의해 장 교육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장 교육감은 “홈페이지 청원마당과 교육감신문고 외에도 학생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학교교실은 폐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제48년차 전남영농학생회 전진대회 성료

전남교육청 “농업교육 지원 강화 6차산업 영농인 육성”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전남도내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축제인 '제48년차 전라남도 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가 지난 5월 29일 호남 원예고에서 학생과 교사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꿈꾸는 농업, 함께 만드는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촌진흥청 나주 지역 농협, 도의원(이민준, 최명수), 지역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해 농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농도(農道)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교육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과학 영농 창의적인 스마트 농업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남이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한 부가가치 높은 6차산업 농업으로 발전하는 데 영농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전남FFK전진대회는 영농학생회원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농업과 중등 농업교

육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큰 잔치로 우수 농업인력 양성에 크게 공헌해왔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매년 가을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전남대표 선발전도 겸한다.

이번 대회에서 호남원예고는 최우수상 8, 우수상 12을 수상해 최고의 성적을 냈다. 또 전남생명과학고(최우수상 4, 우수상 17), 고흥신원과학고(최우수상 4, 우수상 3), 전남자연과학고(최우수상 1, 우수상 11), 광양하이테크(최우수상 1, 우수상 5), 한국말산학교(최우수상 1, 우수상 4), 보성다산고(우수상 3, 영광공업고 우수상 2개) 등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광주 자연과학고에서 열리는 '제48년차 전국FFK 전진대회'에 전남교육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 대회는 1972년부터 매년 도내경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전남FFK전진대회는 영농학생회원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농업과 중등 농업교

김정환 기자

## 광주 고교-대학 연계과정에 10개 대학 고교생 925명 참여

40개 강좌...오늘 개강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작소'가 3일 10개 대학, 고교생 925명이 참여한 가운데 4주간 과정에 돌입한다.

지난 5월 3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꿈꾸는 공작소'는 1~2학년 고등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대학을 방문해 전공교수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 융·복합형 교육과정이다.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모집에 대비해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도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수 기준은 별도 평가없이 70%(11시간) 이상 출석하면 이수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확대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5개 강좌를 추가해 총 40개 강좌로 마련했다. 학생 만족도가 높아 신청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9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올해 1기 과정에는 고등학생 1626명이 신청해 일부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0명 모집에 173명이 신청(5.76대1)한 컴퓨터 사고력-앱 개발(전남대) 과정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상당심리학'으로의 여행(조선대, 5.4대1), 3위는 '간호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호남대, 3.3대1) 과정이다. 시교육청은 별도 추천위원을 선정해 무작위 추천으로 공정하게 참여학생을 선정했다.

'꿈꾸는 공작소'에 참여한 대학과 강좌 수는 광주교대 2개, 광주대 5개, 광주여대 5개, 남부대 3개, 동신대 4개, 광주보건대 2개, 전남대 4개, 조선대 5개, 한국폴리텍광주캠퍼스 5개, 호남대 5개 강좌다. 모두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인호 기자



##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어렵지 않아요”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식)은 지난 31일 대회의실과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41명을 대상으로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초등학교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과정중심평가 계획 수립, 평가 문항 개발 및 결과 활용 이해 제고로, 주요 내용은 과정중심평가의 이해, 성취기준 기반 평가계획 수립, 교과별 과정중심평가 문항개발,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평가 결과 활용 등이다. 연수 활동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하는 수업 설계 역량 및 학생 맞춤형 피드백 사례를 공유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연수 참석자 간 협력을 해서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며 과정중심 평가에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알게 된 실습이었다'며 유익한 연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명식 교육장은 '내실있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학교회계 집행 관련 행정실장 회의 개최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31일 무안외국어체험센터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정책이 민간시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2019학

년도 무안 관내 학교의 재정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집행을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 학교 지원 혁신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전반적인 운영 및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